



말보다는 행동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화를 할 때 두루뭉실하게 말하거나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의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럴 때 말보다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심리학에서 몸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에 어쩌면 말보다 더 정확하게 진심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말보다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전례를 통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이란 회칙에서 이 세상에 하느님 자비를 찾을 수 없기에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본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가 창조주와 구세주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세주의 자비의 샘에 가까이 가게 만들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명령에 따라 자비를 선포해야 하며,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서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라고 세상에 아무리 외쳐도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자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좋은데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있는 곳,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 곳에선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하느님의 자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자비를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정근 요한 신부 | 교구 기획관리국장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사도 2,42-47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1베드 1,3-9
복 음	요한 20,19-31



태평동본당 성경공부반

성경공부반 개강 소식-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다

2023년 3월 첫 주간부터 마산교구 39개 본당, 51개의 성경공부반에서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2월 12일 피정 및 개강 미사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짐하고 되새기며 새 학기 준비를 하였다.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신·구약 성경 73권의 보물을 안고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각 본당으로 파견되었다. 시골에 위치한 본당의 저녁 성경공부반은 어두운 시골길을 왕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봉사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길을 나선다.

하느님을 알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경공부반에 참여한 신자들의 동그란 눈을 마주하면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성경 교육봉사자의 사명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성경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것이기에 매 순간 성령께 의탁하게 된다.

교구 내 성경공부반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태평동본당 성경공부반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평동본당은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만큼 본당 신자들의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구 여러 본당이 성경공부반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태평동본당은 비대면 성경공부 방법으로 성경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2년 동안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하여 70여 명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삶 속에서 말씀을 녹여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1학기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5명이 '예언서'를 공부한다.

태평동본당의 최고령 어르신의 진지하고 또렷한 질문과 대답, 그리고 수업에 늦지 않으려는 직장인들의 분주한 걸음, 다음 시간을 기다리며 성경을 읽고 연습해 오시는 신자분들이 계시기에 태평동본당은 거제지구 말씀 전파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교구청 이전으로 성경사목부도 새로운 곳에 등지를 틀었다.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여러 날 동안 조를 나누어 이삿짐을 정리하여 옮기고, 청소하면서 성경사목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현장에서 기쁘게 봉사하였다.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마산교구 성경사목의 발전과 성장을 의논하고 활동하게 될 이곳이 배움과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을 것이다. 그동안 가톨릭 문화원에서는 강의실이 부족하여 교육이나 행사할 때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무척 고심하였다. 이제 넉넉한 강의실, 탁 트인 자연환경에서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넓게 성경을 이해하고, 더 깊이 성경을 실천하게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교구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열망한다.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시편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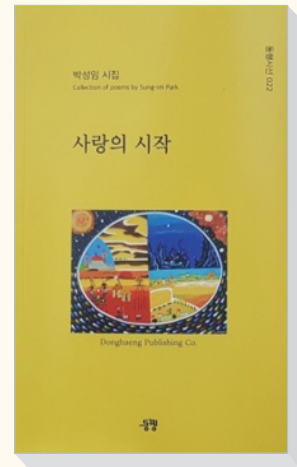


신안동본당 성경공부반

시집 『사랑의 시작』은 죄의 회개와 보속

박성임 클라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거울 앞에 비친 초로의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일인다역을 맡아 숨 가쁘게 살아온 나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했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인생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진 일기장을 펴보게 되었다. 후회와 뉘우침 곧, 죄의 회개와 보속, 참회의 순간순간들. 잘못 엮질러 놓은 실수와 오류들 『사랑의 시작』 시집은 그렇게 탄생되었다. 가슴 저 밑으로부터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을 후회했다. 일기장은 고스란히 시가 되었다. 사랑의 시작은 이 시대의 사랑을 표현한 시집이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며 사랑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시집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면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의 시작'이다. 이 시집을 발표하고 난 후 많은 곳에서 공감의 글들과 문자가 남겨졌다. 성직자, 수도자 몇 분의 소감 글들도 날아왔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어서서 문학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하며 사명감 같은 것이 솟구쳐 올랐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 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늘 함께하셨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분, 그런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살아온 죄? 문학을 통해 공동의 선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내겐 무엇보다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학과 신앙의 길 위를 오랫동안 걸어온 것도 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도 아픔 속에 방황했던 나의 절규도 내겐 필요한 보속의 시간들이었다. 문학과 신앙은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문학을 통한 신앙, 신앙을 통한 문학,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단짝 친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169항)에 사회적 시인(詩人)이란 표현 속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대중 운동이 요구되는데 이 운동의 관계를 교종은 '시인'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셨다. 마치 시인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깊고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고 언어를 입히고 다듬고 매만져 세상으로 건져 올리듯 대중 운동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희망을 보고 그 희망에 목소리와 몸을 입힌다. 시인의 눈으로 생명을 보라는 그 생명을 살게 하라는 이 따뜻한 표현 '사회적 시인'에 대해 한참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 우리의 문학이 종교에 접목되면 선교의 바탕 즉 하느님 존재 인식에 눈뜨게 하고 하느님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음은 크나큰 은총이다. 대면, 비대면 가리지 않고 본당 공동체 구성원 몇 명과 5년째 성경통독을 지속할 수 있음도 이미 예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건 아닐까?

많은 작가들은 하느님의 실존을 노래했고 지금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대 작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답은 교황의 회칙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앙의 비장한 눈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사회적 시인'으로 거듭나야겠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을 용서"하는 참 신앙의 계율을 따르는 작가, 광대가 줄을 넘듯이 작가는 광대의 재주만을 추구하고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글을 써야겠다. 작가의 성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안의성당



위천성당

바오로 사도의 선교여정이 머무는 곳 안의선교본당

황광지 가타리나

안의성당 수요일 낮미사에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남성 오르간 반주자가 눈길을 끈다. 미사가 끝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비의 기도'가 이어진다. 제대 앞에 무릎을 꿇은 채동호 루도비코 주임 신부의 선창으로 스무 명 남짓 신자들이 소리를 높인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소망이 성전에 가득 채워진다. 응답을 받은 것처럼, 신자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온화하고 가볍다.

위천성당+안의성당

안의선교본당은 거창군에 있는 위천성당과 함양군에 있는 안의성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창성당 관할이었던 위천공소와 함양성당 관할이었던 안의공소를 묶어 2008년 12월 29일 선교본당으로 설립되었다. 2009년 1월에 초대 주임 김형렬 신부가 부임하여 사목을 시작했으나, 이제 14년이 된 아직도 어린 본당이다.

사제관은 안의에 있지만, 모든 것들은 반반 나누어 한 본당을 만든다. 미사시간도 사목회의에서 결정하여 나누어 시행한다. 현재는 주일미사 10시 30분에 안의, 오후 5시는 위천에서 바친다. 평일미사는 수·금 10시에 안의, 화·목 저녁 7시 30분에 위천이다. 두 성당의 거리는 차로 20분 정도이니 이쪽저쪽 자유롭게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시행하고 겨울철에는 오후 4시로 변경하는 탄력성을 가진다. 주일미사에 안의는 45명 정도, 위천은 55명 정도 나오는 작은 성당 두 개다.

사목협의회는 재경부장과 총무만 공동으로 하고, 위천성당은 김혜명 모니카 회장을 비롯한 사목위원들이 있고, 안의성당은 하은옥 베르타 회장을 비롯한 사목위원들이 각각 선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사제관 건축을 봉헌했던 장성용 요한이 승합차가 매우 낡은 것을 걱정하여 2021년 10월 안의에 새 승합차를 기증했다. 매우 기쁜 일이었으나 '위천은 어찌고, 안의만 새 차를 타겠느냐' 하는 불편함에 놓였다. 사제와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돈을 만들었다. 안의·위천에서 타던 헌 차를 각각 매도한 돈에 양쪽에서 각각 모금한 돈을 보탤었다. 그래도 모자란 돈은 몇 군데에서 용케 굴러들어와, 거뜬히 삼천여 만원이 되었다. 2022년 6월 위천에도 똑같은 승합차가 도착했고, 공동체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사람도 귀하고 신심도 귀한 시골

주임 사제와 하은옥 안의회장이 자리했다. 부임 3년차를 맞이한 채동호 신부는 이제는 양쪽을 오가는 사목이 익숙하여 번거롭지도 않단다. 신자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면 더 좋고 기꺼이 받아

안의성당 성전



위천성당 성모자상

들이려 한다. 숫자가 적다고 소홀하게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목에 임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험한 자비의 사도 피정을 떠올리고 이곳 신자들의 신심을 위해 자비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 지난해 5월 사파동성당 신자들이 기증한 자비의 성상을 제대에 설치하여 축복식을 하고, 가정용 성상과 기도책은 신자들에게 배부했다. 신자들의 올바른 신심과 공감을 얻기 위한 강론을 몇 차례 했다. 그냥 걸어 놓으면 부적이 될 뿐이니 꼭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요일은 위천에서 수요일은 안의에서 신자 전체가 기도를 바친다. 또 성시간은 첫 목요일 저녁에 위천에서 바치고, 성모신심미사는 첫 토요일 아침 7시에 안의에서 바친다. 이른 아침미사가 있는 날은 성당 가까이에서 추어탕가게를 운영하는 김철우 빈첸시오 시설부장이 누룽지를 끓여 주어 구수한 아침식사를 나누게 되니 이 또한 기쁨이다.

하은옥 베르타는 본당 초기에 회장을 맡아 여러 가지 기초를 놓아야 할 일들에 솔선수범했다. 그동안 그릇가게를 운영하며 성당 일에 뛰어나느라 바쁜 걸음을 해야 했지만 당연한 일로 여겼다. 최근에는 가게를 접고 또다시 회장을 맡아 더 주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웃음을 짓는다. 안의공소 시절 성당을 지을 때부터, 예비신자이면서도 멋모르고 신자들을 따라다녔던 열성이 어디 가지 않았다고 또 웃는다.

이곳에는 드물긴 하지만 귀촌한 신자들이 있어 활력소가 된다. 남성반주자 박해영 레오는 교직에서 은퇴하고, 여기에서 전례부장으로 본당일을 돕고 있다. 또 인천에서 자녀 셋을 데리고 이사한 신자 덕분에 최근에 주일학교도 열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들을 볼 수 없던 성당에 아이 셋이 선물처럼 왔다. 초등생 2명, 중학생 1명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리교사 둘이서 옥이야 금이야 정성을 다하고 있다.

성 바오로 사도의 선교정신을 기리며

안의선교본당은 성 바오로 사도를 주보성인으로 삼고 있다. 성인의 선교정신을 따르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씨앗을 뿌릴 터전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채동호 신부는 선교와 노동에도 충실한 바오로 사도처럼 움츠리지 않고, 신자들과 함께 육체적인 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거룩한 미사>를 통해 미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본당주보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깨닫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의 공백을 딛고 작년부터는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다. 평화의 모후 꾸리아 소속으로 7개 브레시디움이 있는데 안의에 3개 위천에 4개이다. 사제는 이쪽저쪽 오고가며 훈화와 강복에 마음을 신는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오고, 한 뼘이라도 신심이 더 자라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다.

신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욕심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나'와 '너'를 넘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택하며 선교의 사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될 것이다.



교구장 서리 동정

꾸르실로 강의

일시: 4월 21일(금) 10:50

꾸르실로 미사

일시: 4월 23일(주일) 04: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견진성사

일시: 4월 23일(주일)

장소: 구암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4월 18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청소년 사목자 연수

일시: 4월 19일(수)~20일(목)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4월 20일(목) 11:00

장소: 교구청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시: 4월 21일(금) 14:00

장소: 교구청

4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4월 23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2차

일시: 4월 23일(주일) 09:30

장소: 성지여고 체육관

2023년도 신입 신학생 부모 피정

일시: 4월 23일(주일) 10:00

장소: 명례성지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4월 기도모임

일시: 4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1층 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2023년 성령쇄신 전국 치유대피정

일시: 4월 22일(토) 09:00

장소: 서울장충체육관

강사: 오웅진 신부, 윤민재 신부, 양창우 신부

미사집전: 구요비 주교 및 전국성령사제단

문의: 02·777·3211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부활피정

일시: 4월 29일(토) 14:00~30일(주일) 14:00 1박 2일

장소: 원주 본원/ 접수: 4월 27일(목)까지

주제: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28,5)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전지적 치유세미나(무료)

일시: 5월 5일(금)~6일(토) 1박 2일 피정

5월 12일/ 5월 19일/ 5월 29일-금요일

장소: 청주교구 초청성령회관

강사: 신상현 야고보 수사 외 전국유명강사

문의: 043·213·9103/ 010·8466·8238

재속매발가르멜회 마산가르멜산 성모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22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담당자 010·3191·8315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모집: 5월 31일(수)까지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만 18세 ~55세 가톨릭 신자

과정: 지원자 (1년)교육 이수후 입회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봉사자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 6월 30일(금)까지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중 아씨의 성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만 18세~35세 미만 미혼 남, 여 젊은이

문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청년(유프라) 담당 010·4559·5134

월요시국기도회(시국미사)

일시: 4월 17일(월) 19:00

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사거리(학문당서점)

준비물: 개인칼판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신부님들께서는 장백의와 백색 영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마산장애인복지관 작품전시회 ‘나의 나뭇잎’

일시: 4월 19일(수)~5월 2일(화)까지

오픈 행사-4월 19일(수) 14:00

장소: 롯데백화점 마산점

더 갤러리(지하2층 영풍문고내)

주최: 마산장애인복지시설현을

위한연합회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70·8798·4807

※무료 관람이니 많이 와서

봐주세요.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일시: 5월 1일(월) 09:30~17:00

장소: 부산주교좌 중앙성당

강사: 장재봉 신부, 김경희 수녀

파견미사: 장재봉 신부

찬양 출연자(4팀):

·갯등중창단 OB

(12인조 신부)

·고영민, 손현희 찬양선교사

·김정식, 손봉섭

·듀오 메타노이아

·신상옥 단장

주최: 성모올타리 공동체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구	4월 17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세미나-제4강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박혁호 미카엘 신부(교구 성령봉사회 담당 사제)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상담-필요시 언제나	010·7387·6219(문자 문의)/ 054·976·6219	대상: 성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일본 홋카이도 순례 8월 16일 출발
3박 4일-209만원

■나가사키 순례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3박 4일-125만원

■이집트 완벽일주(성서학자 동행)
11월 1일 출발 14박 15일-650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장의 120만원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지도) 성지순례 모집

5.1(월)~4(목)/ 5.8(월)~10(수)/ 5.15(월)~18(목)
6.9(금)~11(주일)/ 6.13(화)~15(목)/ 6.20(화)~22(목)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5.25(목)~28(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6.23(금)~25(주일) 전주·광주교구 3일(전주·광주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

성직자 묘역 성묘



최문성 마르코 신부(교구 성소국장)를 비롯한 교구 사제들과 교구청 직원들은 4월 3일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에서 묘지 주변을 정리한 후, 위령기도를 하였다.

교구 레지아 2023년도 전반기 레지오 단원 소양 교육



교구 레지아(담당: 최태준 필립보 신부, 단장: 백광렬 도미니코)는 3월 19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2023년도 전반기 레지오 단원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허성재 모이세(레지아 서기)의 사회와 최태준 신부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최태준 신부는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단원들은 성모님의 신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레지오 단원 150명이 참석하였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신앙심 깊은 동티모르 친구와 ‘돈’만 생각하는 사제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시목센터장

지난 2월, 동티모르 교우들을 위한 미사를 위해 통영에 들러, 인도네시아 신부님과 동티모르 출신 형제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최근 동티모르 출신 형제들이 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드물어, 미사 외에 일상적 고충상담, 의료 및 노동복지에 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부님과 공동체에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곧바로, 진주에 있는 동티모르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다. 8개월 전부터 한 형제가 신체의 마비 증상으로 와상생활을 하고 있고, 조만간 본국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물어보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알 수 없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왜?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했을까? 진단도 받지 못하고, 어떤 병인 줄도 모르고 그저 신체에 마비 증상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니...’ 등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를 느꼈다. 예전 필리핀 선교지에서 열악한 의료체제로 너무나 쉽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 무력했던 상황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 친구는 진주의 허름한 한 아파트에서 5명의 동티모르 출신 형제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 신부님이 찾아갔는데 건방지게(?) 앉아서 손님을 맞았다. 하반신에는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은 채로 8개월 이상을 ‘얕은뱅이’로 살아온 것이다. 하지가 마비되어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친구는 수년 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강제출국 대상자이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이용 시, 출입국관리소로 송치되어 본국으로 송환될 두려움에, 제대로 된 진료도 한 번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떠나지 못하고 머물 수밖에 없었던 작은방은, ‘본국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희망’이 함께 존재했다.

환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한 결과, 경추와 흉추에 걸쳐있는 종양으로 인한 강직성 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상급기관으로 옮겨야 수술적 치료나 여러 다른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현재 서울의 상급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준비 중이다.

작년 이 환자가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동료들이 4층 아파트에서 환자를 업고, 메고 내려와 택시를 타고 인근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본당 신학생을 통하여 우연히 듣게 되었다. 사실을 확인하니, 이 친구들이 마르코 복음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 치유한 이야기를 재현하였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얘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마르 2,6)라는 말씀을 듣고 걸어서 일하러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눈물 나는 신앙심이지만 참으로 과학기술이 진보한 이 세상에서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하지만 자본주의에 물든 사제는 의료보험이 없는 이 환자의 병원비를 어찌 감당할까 하는 금전적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 메워져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심 깊은 이 형제와 돈 걱정하는 한 사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그리고 차비도 베풀어 주소서!!